

2018년 8월 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S&P500, 사상 최고치(2,872pt) 경신 직전

경기 민감 업종의 상대적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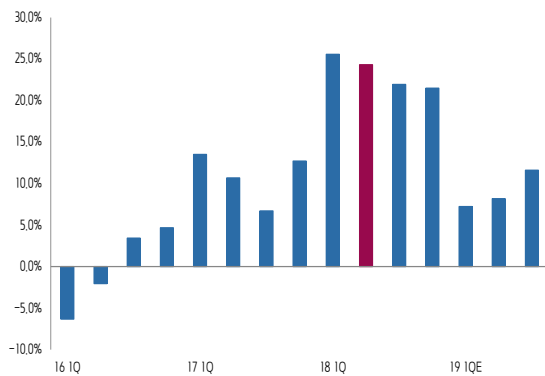
무역분쟁 보다는 실적에 주목

미 증시는 무역분쟁과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특히 경기민감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 미-중 무역분쟁이 여전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로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었으나 실적에 주목하며 상승세 유지. 한편, 중국 인민일보가 애플이 중국 인민을 위해 이익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무역분쟁 우려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도 상승 요인(다우 +0.50%, 나스닥 +0.31%, S&P500 +0.28%, 러셀 2000 +0.23%)

전일 중국 상해 종합이 2.74% 급등하며 마감.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동시호가 채택과 주가 조작 방지, 더불어 양로펀드 설립을 허가하면서 증시로의 자금유입 기대감 등이 주요 요인. 더불어 중국 상품 선물시장에서 원유 선물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관련 소식이 이어지고 있으나 시장참여자들은 관련된 소식 보다는 기업들의 실적과 증시 안정을 위한 조치들에 더 주목하는 양상. 이러한 변화는 미국 증시가 무역분쟁 보다는 기업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음.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지난 3 일(금) S&P500 의 2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0% 증가한 것으로 추정.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yoy +125.4%)와 소재(yoy +53.6%)가 이를 주도 했으며, IT 도 전년 대비 31.7% 증가한 것으로 추정. 3 분기 S&P500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7%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만, 팩트셋은 2 분기 업종별 영업이익의 추정치는 그 전주에 비해 대부분 상향 조정했으나, 3 분기는 대부분 하향 조정. 최근 일부 기업들이 실적 발표 후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로 하반기 실적 둔화 가능성을 언급 한 점과 일맥 상통. 특히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의 법안세 인하 효과가 2018 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줬으나, 2019 년부터는 기저효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점에 주목. 당분간 무역분쟁 보다는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서겠지만,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기업들의 비용과 관련된 무역분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

분기별 S&P500 영업이익 증가율(yoy)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	변동	지수	지수	변동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300.16	+0.60	홍콩恒生	28,248.88	+1.54
KOSDAQ	784.70	+0.42	영국	7,718.48	+0.71
DOW	25,628.91	+0.50	독일	12,648.19	+0.40
NASDAQ	7,883.66	+0.31	프랑스	5,521.31	+0.81
S&P 500	2,858.45	+0.28	스페인	9,772.80	+0.52
상하이종합	2,779.37	+2.74	그리스	761.29	+0.22
일본	22,662.74	+0.69	이탈리아	21,853.81	+1.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산업재 상승

테슬라모터스(+10.99%)는 앨런 머스크 CEO가 주식을 공개 매수해 상장을 폐지할 것이며 자금은 확보 되었다고 발표하자 급등했다.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지분 5%를 보유했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이었다. 캐터필라(+2.08%), 보잉(+1.21%) 등은 무역분쟁 이슈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 스냅(+0.54%)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시간 외로 11% 넘게 급등 하고 있다. 디즈니(+0.53%)는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로 2% 넘게 하락 중이다.

엑손모빌(+1.36%), 셰브론(+0.71%), 코노코필립스(+1.63%) 등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애플(-0.94%)은 중국 인민일보가 “인민들과 이익을 더 나눠야 한다” 라고 보도 하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펩시코(-2.69%)는 인드라 누이 CEO가 10월에 사임한다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페이스북(-1.01%)은 전일 발표한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해 은행들이 난감을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19%	대형 가치주 ETF	+0.34%
에너지섹터 ETF	+0.90%	중형 가치주 ETF	+0.17%
소매업체 ETF	+0.84%	소형 가치주 ETF	+0.08%
금융섹터 ETF	+0.46%	배당주 ETF	+0.13%
기술섹터 ETF	+0.38%	변동성 ETF	-2.05%
소셜 미디어업체 ETF	+0.27%	대형 성장주 ETF	+0.35%
인터넷업체 ETF	+0.34%	중형 성장주 ETF	+0.38%
리츠업체 ETF	-0.21%	소형 성장주 ETF	+0.33%
주택건설업체 ETF	+0.96%	신흥국 고배당 ETF	+0.79%
바이오섹터 ETF	+1.23%	신흥국 저변동성 ETF	+0.65%
헬스케어 ETF	+0.01%	하이일드 ETF	+0.11%
곡물 ETF	-0.51%	물가연동채 ETF	-0.13%
반도체 ETF	+0.67%	Long/short ETF	-0.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61.93	+0.72%	-1.27%	-1.78%
소재	372.59	+0.26%	-0.48%	+0.01%
산업재	642.24	+0.70%	-0.55%	+3.67%
경기소비재	899.70	+0.44%	+1.64%	+1.06%
필수소비재	554.30	-0.57%	+0.86%	+2.50%
헬스케어	1,039.83	-0.01%	+1.11%	+3.33%
금융	470.75	+0.48%	+1.49%	+4.33%
IT	1,288.83	+0.33%	+3.65%	+2.29%
통신	151.66	+0.42%	+1.38%	+0.52%
유틸리티	269.80	-0.22%	+0.63%	+2.26%
부동산	205.93	-0.22%	+0.99%	+0.6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무역지표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1.72% MSCI 신흥 지수도 1.03%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34 계약)에 힘입어 0.35pt 상승한 298.2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7.1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중국 증시가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3% 가까이 급등 했다. 이에 힘입어 한국 증시 또한 동반 상승 했다. 무역분쟁 우려감이 여전하지만 부양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 증시도 무역분쟁과 이란 리스크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실적 개선에 주목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듯 개별 국가들이 무역분쟁 보다는 실적과 증시 부양책 등에 주목하며 상승했다. 그 동안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줬던 무역분쟁 이슈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한편, 오늘 중국의 7 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된다. 지난 7 월 6 일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부과 이후 수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6 월 수출은 관세부과를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밀어내기로 전년 대비 11.3% 증가 했었다. 특히 6 월 대미 흑자 규모는 289.7 억 달러로 전월 대비 18% 급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발표되었었다. 당시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분쟁과 관련된 격화된 반응이 이어졌었다. 이를 감안 7 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에 따라 무역분쟁 이슈가 부각되거나 잠시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지속

미국 6 월 채용공고는 전월(665 만 9 천건) 보다 개선된 666 만 2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다만 시장 예상치인 674 만 건은 하회했다.

독일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9% 감소되었다.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2.4%)나 예상치(mom - 0.5%)를 하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이란 제재 우려로 상승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어떤 기업과 국가도 미국과 거래하지 못할 것” 이라고 언급 하는 등 강경한 발언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EIA 는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9 년 미국의 산유량에 대해 하향 조정(1,180 만 배럴→1,170 만 배럴) 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달러지수는 무역분쟁 이슈가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소외 받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한편,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등 위안화가 안정을 찾은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또한, 고용지표가 전월 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점도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상승 했다. 한편, 3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 개월 평균인 2.88 배를 하회한 2.65 배에 그친 점도 국채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으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된 여파로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구리와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되자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보합을 보였고 철근은 0.42%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9.17	+0.23	+0.60	Dollar Index	95.173	-0.19	+0.65
브렌트유	74.65	+1.22	+0.59	EUR/USD	1.1599	+0.39	-0.79
금	1,218.30	+0.05	-1.24	USD/JPY	111.38	-0.02	-0.43
은	15,373	+0.16	-1.20	GBP/USD	1.2942	-0.02	-1.39
알루미늄	2,038.00	-0.24	-2.07	USD/CHF	0.9955	-0.17	+0.53
전기동	6,175.00	+0.68	-1.98	AUD/USD	0.7423	+0.49	-0.01
아연	2,600.00	+1.21	-0.95	USD/CAD	1.3054	+0.38	+0.37
옥수수	384.50	-0.19	-0.52	USD/BRL	3.7615	+0.69	+0.11
밀	590.00	-1.21	+2.92	USD/CNH	6.8209	-0.65	+0.23
대두	905.75	+1.37	-1.44	USD/KRW	1123.80	-0.02	+0.46
커피	109.05	+0.28	-0.77	USD/KRW NDF 1M	1117.15	-0.76	+0.4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977	+3.72	+1.69	스페인	1.391	-0.30	-0.50
한국	2.557	-0.80	-1.30	포르투갈	1.745	+0.20	+1.40
일본	0.116	+0.60	+5.40	그리스	3.968	+0.10	+3.00
독일	0.409	+2.00	-3.40	이탈리아	2.866	-3.40	+15.00